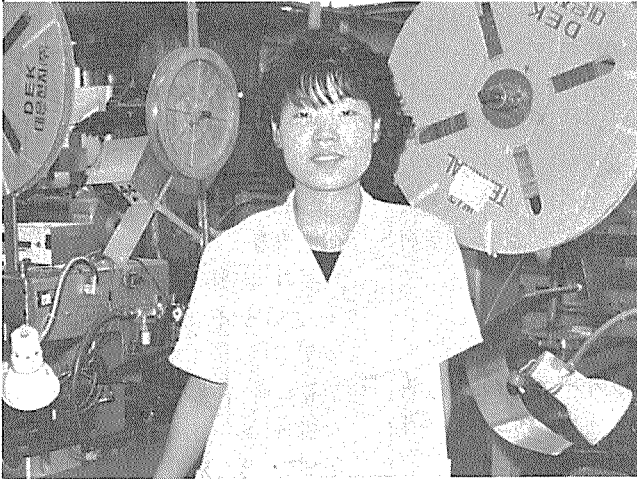


겸손과 사랑을 갖춘 팔방미인

임 명 순 대은전자(주) 생산부



고향 : 충남 조치원
 입사 : 88년
 생활신조 : 성실하고 참되게
 취미·특기 : 등산, 탁구
 결혼이란 : 회·로·애·락을 나
 늘줄 아는 사람과의 결합.
 감영깊게 본영화 : 늑대와 춤을
 별명 : 뽕
 애창곡은 : 가을날의 사랑
 소중한 기억 : 입사때 환영회에
 서 대상
 동료에게 한마디 : 책임을 다하자.

저하고 만나자구요?
인터뷰요?

제가 무슨 잘 한일이 있다고 인터뷰를 합니까? 어렵게소리 통화를 마친뒤 대은전자(주) 생산부에 들어서자 분주히 움직이며 일에 여념이 없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빈틈없는 여자!

딱 잘라 말해서 너무 많은 것을 잘하는 여자! 대은전자의 임명순씨가 電子25시의 이달의 주인공이다. 그녀가 남긴 공적이 공장 구석구석에 배어 있었다. 임명순씨는 자기가 시작해서 끝마친 일에 대해서는 완벽한 마무리나 새로운 방법, 비상한 재주를 발휘함으로써 회사와 동료들의 찬사를 한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다.

현재 주생산품인 Telephone Modular, Jack, Plug, Accessory & Cord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과 인원관리 생산량 체크 등 생산전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조장으로서 電子25시의 세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고 많은 일을 해낼려고 노력하지만 모든 일에 만족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라며 오히려 욕심도 많은 사람임을 짐작케 한다. “나의 일이 있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행복합니다”라며 환하게 웃는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 여성들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업이나 산업현장에서 고유한 자신의 일을 찾지 못하고 남성중심의 조직

속에서 사회활동을 영위해 왔지만, 최근 들어 사회 각분야에서 여성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라며 자신의 일을 고집하며 자기자리를 매김질해 가는 사람임을 또한 알게 해준다. 평소 일을 마치고 자신을 살찌우는 일도 열심히인데 최근에는 「동의보감」 「발해의 혼」이라는 책을 읽었다고.

“동의보감은 한마디로 의술을 가지고 사는 허준의 이야기를 다룬 것인데 우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는 좋은 책이었다”고, “발해의 혼은 나라의 재건을 위한 애국심의 발로로 한 나라의 맥을 이어가게 하는 나라에 대한 충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한

다. 임명순씨는 이렇듯 회사와 집을 오가며 주어진 삶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임을 알게 해준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서 하나의 빛이 되고 싶은 것이 소망이라는 그 마음 속에는 불행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하는 깊은 정이 가득 담겨 있는 듯했다.

그래서 여건이 주어지면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설립,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단다. 또한 신앙생활도 돈독하여 성당 생활을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다.

한마디로 “신앙은 사랑과 봉사정신”이라며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으면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차게 되어 흐트러진 사람이 될 수 밖에 없어 항상 경계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먼저 겸손을 배워야 「사랑과 봉사」를 실천할 수 있다고. 또한 성당에서 JOC모임이 있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서로 나누며 서로의 생활에 적용시켜 나아가고 있어 임명순씨의 진솔한 삶의 일면도 볼 수 있다.

한편 “저의 손길이 우리회사의 제품에 깃들여 저서 남의 손에 가서 제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에는 뿌듯한 무언가가 있다고.

임명순씨는 한 라인의 조장이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언니라고 부른다. 박이순 언

니는 열심히 일하는 분이고, 못마땅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지 쓴 소주 한잔에 위로로 해주는 정말 넉넉한 언니라고 한다. 김선영 언니는 유모감이 풍부해서 항상 여유있는 모습이 좋다고, 또 이경순 언니는 펜찮은 표현일지 모르지만 정말 귀엽다며 동료들을 소개해 주기도 한다. 회사와 개인생활에서 깔끔하게 사는 사람으로 생각된다. 한편 살다보면 어려운 일도 닦치게 되는데 이때는 기숙사에 있을 때 사귄 언니를 찾아가 자기의 삶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고, 인생상담을 한다고, 그 언니는 경험도 많지만 현실판단을 잘해 자기의 아픈 곳을 잘 치료해 주는 언니로 항상 선망하는 또 존경하는 언니라고 이야기 해준다.

한편 임명순씨는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상당한 고참에 속한다. 처음에는 사회풍토가 그랬듯이 여성들에 대한 경시 풍조가 가슴 아팠다고 한다. 지금은 나의 일이 있고 또 충실하게 일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위안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동료들과 지내는 모습은 어떠한 질문에 “단순한 일을 하다보면 짜증도 나고 지루하죠. 같이 있는 언니들도 잘해주고 있지만 따듯한 미소로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까지 해야 된다고 한다. 그런데 재주가 없어서 그러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아쉬워 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가장 보

람있었던 일은 “언젠가 한꺼번에 밀어 닦친 수출 물량을 맞추느라고 며칠동안 밤새워 일하여 무사히 수출할 수 있어서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다”며 당시를 회상하는 눈빛에서 전자25시 파수꾼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평소 존경하는 인물로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진실한 삶에 만족을 느끼는 여성이라 생각되어 신사임당을 존경하게 되었다”며 동양 여성상의 상징이라는 말에 액센트를 주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성격이 고지식하고 센스가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잘 보아주는 사람이 없단다.”

배우자 상에 대해서는 “성격이 밝고 유머가 있는 남성을 배우자로 선택하고 싶다”며 불그스레한 얼굴로 대답했다. 시간이 허락되어 산에 오르는 기회를 많이 가져 안 다녀본 산이 없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여사원끼리 황악산을 다녀왔는데 도시의 찌든 때를 말끔히 씻어 버리고 온 기분이라고. 또한 평소 잘 어울리지 못한 동료들과 좋은 사귄의 기회가 되었다며 동료에도 중히 여기는 편을 볼 수 있었다.

이제는 대은전자(주)의 사람임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임명순씨! 진솔한 삶을 살아가는 그녀의 하루 하루의 땀방울이 그녀가 생각하는 소망의 밑거름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